

‘스마트 기술’ … 현장실증연구 본격 착수

농진청, 8~9일 남원서 과수농가 돕는 신기술 연수 개최

농촌진흥청이 과수농가를 돕기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다.

과일나무가 병해나 가뭄, 폭염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잦아지자, 이를 예방하고 과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실증 연구는 8일부터 9일까지 전북 남원에서 열리는 연수에서 시작되며, 농가와 관련 업체, 지역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과수 생육기에 기온이 폭 떨어지거나 여름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며 농가의 시름이 깊어졌다.



농촌진흥청이 과수농가를 돕기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작년 4월 말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새순이 얼어 죽기도 했

고, 여름엔 열대야가 22일이나 이어졌다. 가뭄까지 겹쳐 과일 당도가 떨어지고 겹질 착색이 잘 되지 않는 피해가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7개 지역에서 3가지 주요 기술을 실험적으로 적용해 볼 계획이다.

먼저 포도 온실 온도 조절 시스템으로, 추운 날씨에 새순이 얼어 죽거나 꽃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포도 하우스에 열풍 순환 팬을 설치해 생육 초기엔 3도 이상, 꽃 피는 시기엔 12도 이상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두 번째는 사과 햇빛 차단망 시스템으로, 햇빛이 너무 강하거나 비가 부

입니다. 고온가에는 햇빛을 차단하고, 비가 7일간 20mm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스마트 차단망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의성군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개발 중이다.

세 번째는 포도밭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으로, 포도 캠퍼얼리 품종이 겹질 착색이 잘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다. 일정 간격으로 포도밭에 물을 자동으로 공급해, 가뭄과 고온에 의한 착색 불량을 줄인다.

농촌진흥청 이남수 기술지원과장은 “현장에서 실증 연구를 하면 기술을 실제 농가에 적용하기 전에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상 기후에 강한 농업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빠르게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사고 제로(0)를 목표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사고 없는 은행 만들자” 결의

농협은행 전북, 임직원 참여 내부통제 강화 다짐 · 교육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사고 ‘제로(0)’를 목표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7일 내부통제 강화와 고객 신뢰확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는 김성훈 본부장 이하 전 영업점 사무소장과 전북본부 전 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결의문 낭독 및 원리원칙 10계명 서약서 작성 등 내부통제 강화와 기본원칙 준수를

통한 ‘금융사고 제로화’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총괄하고 있는 준법감시부 소속 이성구 국장이 ‘영업점 금융사고 예방 및 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전북 관내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사고 제로를 실현하는 전북농협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LX공사, 고재학 신임 기획혁신본부장 임명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신임 기획혁신본부장에 고재학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027년 4월까지다.

고 본부장은 1995년 LX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 노사협력처장, 자산관리부장, 경영지원실장 등 본사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부산울산지역본부장과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지적기술 혁신과 근로환경 개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LX공사 사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LX공사는 이번 인사와 함께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장에 최종묵 본부장을 부산울산지역본부장에는 박기정 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고재학 본부장

/오상근 기자

전개공, AI 챗봇 ‘모든지주임’ 도입… 업무 효율성 ‘쑥쑥’

공사 전용 AI 챗봇 ‘모든지주임’에 학습… 업무 혁신 · 자동화 실현 목표

전북개발공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업무 혁신에 나선다.

공사는 최근 AI 챗봇 ‘모든지주임’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공사 내부의 다양한 업무 자료를 공사 전용 AI 챗봇 ‘모든지주임’에 학습시켜 업무 혁신과 자동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지주임’은 오픈소스 챗봇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가상의 AI 사원으로, 내부적으로는 Anthropic, Google Gemini, LLaMA, OpenAI, Perplexity 등 5개의 주요 LLM(대규모 언어모델)을 연동하여 운영된다. 말 그대로 ‘뭐든지 잘하는



스마트한 디지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사내 지식관리 자료(공사 매뉴얼, 규정, 지침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정제·문서 분할 및 병합 △분류화 및 벡터DB구성 △RAG(검색 증강 생성)* △챗봇 검증

/오상근 기자

및 고도화 등 6단계로 구성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 사용자들의 반복적인 질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AQ(자주 묻는 질문)와 업무 매뉴얼을 챗봇에 학습시켰으며,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반복적인 응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모든지주임 성장 프로젝트는 공사 직원이 기존 챗봇보다 AI를 친숙하게 체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공동사업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개최

5월 30일까지 접수 … 협동조합, 일반 개인 · 단체 누구나 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경영) 확산을 위해 ‘공동사업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5월 30일까지이며, 공모 분야는 △우수모델 확대 · 심화 △새로운 공동사업 모델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협동조합, 일반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주제는 △공동사업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 △기타 공동사업(R&D, 공동시설, 시험 · 인증, 알선 · 조정, 교육 등)이며,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협동조합지원제도 활용, 중소기업자 지위 활용 등을 착안해 비즈니스 모델 확장과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 중 주제 적합성, 아이디어,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수상작은 상장과 함께 대상(1명/

팀) 300만원, 우수상(2명/팀) 200만원, 장려상(4명/팀) 1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의 자원과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기업 간 협업 플랫폼으로 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이 협동조합의 미래”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존 공동사업 모델의 혁신과 발굴된 새로운 공동사업 모델 아이디어의 공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봄철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접종 당부

올해 봄, 기온 상승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지고 개체 수도 늘어나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에 예방 차원에서 올바른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모기는 소, 돼지, 말 등 다양한 가축에 질병을 옮기는 주요 매개체이다.

모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축 전염병으로는 △소=립프스킨병, 아가버네병, 유행열 등 △돼지=일본뇌염, 아프리카마역 등이 있다.

가축의 백신 접종은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최소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백신 접종 후 한체 형성까지는 일반적으로 1~2주기간이 소요되므로, 모기 본격 활동 시기인 5월을 고려하면 3월 말부터 4월 초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모기 매개체성 가축 전염병 예방 백



신을 접종할 때는 주로 ‘피하 주사법’을 권장하고 있다.

가축의 목과 어깨뼈 사이 피부를 손으로 잡아 피부 아래에 주사하는 방법이다.

백신은 반드시 2~5도(℃) 냉장고에 보관한다. 오염된 주사침은 즉시 교체하고, 한 마리당 한 개의 주사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두 가지 이상의 백신을 동시 접종할 때는 접종 부위를 달리한다. 한번 희석한 백신은 즉시 사용하고 남은 백신은 바로 폐기한다.

농촌진흥청 난지축산연구센터 김남영 센터장은 “봄철 기온 상승으로 흡혈 곤충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